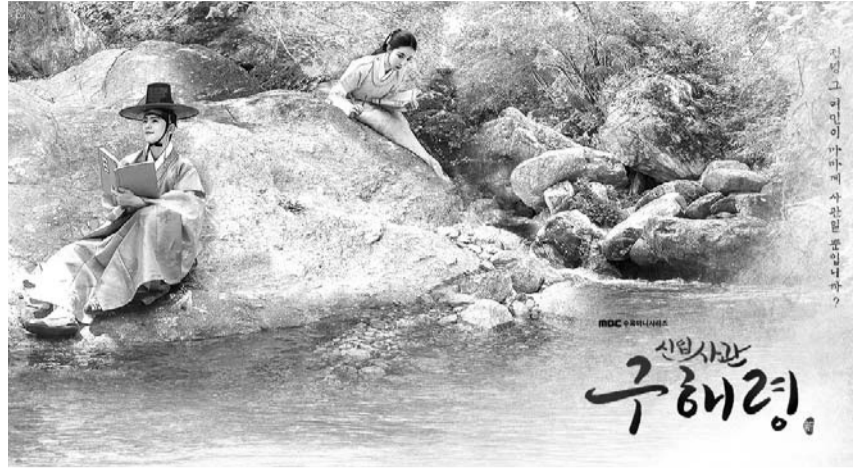


'밤 9시 드라마' 편성 약발 떨어졌나



MBC '신입사관 구해령'



MBC '웰컴2라이프'



SBS '리틀 포레스트'

'구해령' '웰컴2' 시청률 4~5% 대로 기세 한풀 꺾여 드라마는 콘텐츠가 좌우 ... 플랫폼 고민도 필요해

MBC가 아침 차게 편성한 '9시 드라마'들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현재 밤 9시에 방영 중인 평일 미니시리즈들은 종전 '10시 드라마'들과 시청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종영까지 4회 분량만을 남겨두고 있는 MBC TV 월화드라마 '웰컴2라이프', 수목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 평균 시청률은 각각 4.7%, 5.3%에 불과하다.

올해 초 밤 10시에 방송한 MBC TV 월화극 '나쁜형사' (7%)와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6.5%)보다 못하고,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들은 수목극 '붉은 달 푸른 해' (4.7%), '더 벡커' (4.1%)와 비슷한 수준이다.

MBC가 '밤 9시 드라마' 편성을 시작하면서 첫 주자로 내놓은 '검법남녀'와 '봄밤'은 각각 평균시청률 7.9%, 7.1%로 준수한 성적을 냈지만, 이는 편성 시간이 아니라 드라마 콘텐츠 자체에서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법남녀'의 경우는 시즌1보다 진화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났고, '봄밤'은 안완석 PD 특유의 '현실 멜로' 연출 능력이 빛을 발했다.

이에 반해 '웰컴2라이프'는 드라마 안에서 이질적인 장르가 융합하지 못하고 낯을 뺀 채, '신입사관 구해령' 또한 청춘 남녀의 로맨스에만 집중하면서 '여성사관 이야기'라는 초반 기획 의도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SBS도 올여름 월화 미니시리즈 대신 예능 '리틀 포레스트'를 방송하면서 편성 변경을 시도했지만, 이 프로그램 또한 시

청률 3~4%대를 맴돌면서 점차 하락세다.

지상파 3사 가운데 밤 10시대에 방송하는 유일한 예능이지만, 편성의 유리함을 정작 프로그램이 이어받아 살리지 못한 실재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편성은 방송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편성 차별화가 드라마 흥행을 무조건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편성 시간대가 아무 의미 없다고 할 순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결국은 콘텐츠가 얼마나 좋은지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공희정 TV평론가 또한 "역시 편성보다 기획이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시간대를 옮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니시리즈=16부'라는 틀을 깨서 스토리를 더 다이나믹하고 밀도 있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학과 교수 겸 드라마 평론가는 "콘텐츠 경쟁력은 시간대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의 힘이어야 한다. 이전 불변의 진리"라고 전제한 뒤 "단순히 시간대를 옮기는 편성이 아니라, 지금은 모바일과 디지털 등 플랫폼의 변화를 반영한 편성 전략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핑크 14년만의 무대 '눈물바다'



'캠핑클럽' 시청률 4.0%

14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선 핑클에 팬들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방송한 JTBC 예능 '캠핑클럽' 시청률은 4.028%(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 핑클의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는 무대에 올라 100여 명의 팬과 만났다.

이들은 최고 히트곡 '영원한 사랑'을 비롯해 '블루라인', '당신은 모르실거야', '루비' '내 남자친구에게' 등 옛 노래들과 신곡 '남아 있는 노래처럼'을 선보였다.

이효리는 무대를 마치고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못다 한 이야기는 15년 살아두었다가 실버 콘서트에서 할까. 그때까지 다들 살아있으리라"고 웃었다. 옥주현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진은 "각자 가사를 써서 이번에 노래를 만들었다"고, 성유리는 "캠핑클럽"을 하면서 많은 분이 나를 응원해준다는 것을 알았다"고 눈물을 보였다.

동시간대 방송한 SBS TV '미운 우리 새끼'는 15.0%-17.1%-17.3%, KBS 2 TV '개그콘서트'는 6.0%, MBC TV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는 3.3%-3.9%였다. /연합뉴스

송가인 단독 콘서트 TV조선 특집쇼로 방송

TV조선이 오는 11월 열릴 가수 송가인의 첫 단독 리사이틀 '어게인' (Again)을 특집쇼로 방송한다고 23일 밝혔다.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우승하며 데뷔한 송가인은 11월 3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150분간 공연을 연다. TV조선은 전체 공연 중 90분가량을 특집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송가인은 공연을 앞두고 작곡가들에게 170여 곡의 노래를 받아 선별하며 무대를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송가인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콩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4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전라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
11	00 다크 공감(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다크 나는...산다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최강 1교시(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5 살림하는 남자들(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우리말 겨우기(재)	10 생활의 발견(재)		00 전라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모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모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콩따리	00 고강건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크멘터리 3일(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거리의 만찬(재)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양코리 핑키피쉬	00 리틀 포레스트
11	35 UHD 습터 40 시사기획 창(재)	10 지식채널 프로젝트 배장이 스페셜	05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2부
12	35 KBS 뉴스 45 KBS 걸작 다크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영상앨범 산(재)	00 스포츠특선 2019 PBA 프로당구 투어	4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가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땡땡땡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8:30 띠띠뽀 띠띠뽀	15:10 로보가 폴리(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아시아 강촌기행-흐르는 강물 따라 중구》
09:00 출동! 슈퍼왕스	15:55 출동! 슈퍼왕스(재)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골러골러 가다 보면 2부 바다를 달리다》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꿈(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30 한국기행	16:40 땡땡땡 유치원(재)	22:45 건축탐구 - 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4:25 지식의 기쁨(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4일 (음 8월 26일 甲子) ☎ 010-9790-8237

<p>36년생 반작용 할 수도 있나. 48년생 예외 없이 적용 될 것이니 준비를 해야겠다. 60년생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형세임을 알아야 한다. 72년생 하나의 조치로 여러 가지를 이루려라. 84년생 사세부득이, 전체적인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96년생 사세가 종합적으로 집약된다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91, 85</p>	<p>30년생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 42년생 그 어느 것으로도 미진할 것이니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다. 54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가면서 더 확대되는 기세이다. 66년생 이제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78년생 계획한 바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찬스이다. 9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행운의 숫자 : 54, 72</p>
<p>37년생 숙단하다가가는 오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 49년생 비교 되면서 진가가 드러나리라. 61년생 본디부터 없었던 것이나 같으니 집착할 필요 없다. 73년생 훗날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85년생 지나친 집착은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97년생 마음대로는 아니 되니 언행으로써 표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7, 03</p>	<p>31년생 멀리 내다보면서 관계 설정하라. 43년생 흉내 내다가는 참으로 우순은 풀이 되리라. 55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67년생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겠다. 79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91년생 신뢰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14, 42</p>
<p>38년생 미봉책은 두 번 일을 하게 한다. 50년생 근본적인 동기 부여가 절실한 때이다. 62년생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74년생 액떨할 일이 보이나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86년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98년생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23, 75</p>	<p>32년생 단독으로는 힘들 것이니 함께 행하라. 44년생 머지않아서 운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56년생 다 되어 가던 일이 반복해서 지연되는 일이다. 68년생 길사의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정황이 역력하다. 80년생 아무 것도 아니니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 없다. 92년생 길성과 흥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3, 65</p>
<p>39년생 사소한 정해 요소는 개의치 말자. 51년생 막연한 집착은 행복지수를 하락 시킨다. 63년생 능률적인 계획에 참여 기회가 생기는 동세이다. 75년생 상당한 성과가 있다. 87년생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더 나올 것이다. 99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변함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32</p>	<p>33년생 밖에 이로운이 있다. 45년생 봉당을 빌려 주니 안방까지 달라는 이가 보인다. 57년생 가랑잎에 불붙듯 일어나는 기세이다. 69년생 실리적으로 처리 하지 않으면 무고하고 말썽을 피운다. 81년생 여무지게 마무리하고 나야 후일을 도모하기가 용이해진다. 93년생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3, 01</p>
<p>40년생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52년생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64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자. 76년생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우 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88년생 의외의 인품과의 만남이나 진귀한 기회를 접할 수 있으리라. 00년생 영향력 하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48, 28</p>	<p>34년생 발꿈치 가렵지 않겠다. 46년생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작은 불똥이 튀어서 큰 불이 될 수 있는 조짐이다. 69년생 유동적 가변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82년생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띠는 단계에 진입한다. 94년생 굵은 것은 퍼자. 행운의 숫자 : 75, 71</p>
<p>41년생 길사로 연결되고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53년생 생질만 수용한다면 좋은 기회로 연결 될 수 있다. 65년생 뒤 따를 없을 것이니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된다. 77년생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 하리라. 89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01년생 낮은 자세로 임하자. 행운의 숫자 : 57, 20</p>	<p>35년생 중간에서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47년생 보편타당해야만 설득력을 얻게 된다. 59년생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70년생 향해하는 선박의 풍향이 수시로 변하는 이치이니라. 83년생 하나 씩 진전을 보이겠다. 길사가 발생하면서 행운이 깃든다. 95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걱정거리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83, 54</p>